

| | | | |
|-------|---------------|-------|------|
| 제목 | 음악 - 전부에서 일부로 | | |
| 소속 대학 | 자연과학 | 소속 학과 | 청각학과 |
| 학 번 | 2024**** | 이 름 | 조** |
| 이메일 | | 연락처 | |

음악 - 전부에서 일부로

나는 음악을 했다. 이번 심비우스의 주제를 보고 ‘이번 작문은 쉽겠군.’ 하고 생각이 든 이유다. 주제에 대한 인상만 곱씹기를 어느새 한 달째. 인생에서 차지하는 두께가 두터운 주제를 다룰 때 오히려 첫 삽을 뜨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마치 진리, 사랑, 정의와 같이 무겁고 흔탁한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쓸 때와도 같다. 인생의 축에서 긴 영역을 차지하고서 나 자체와 열기설기 함께 엮여 있는 실뭉치 같기에 어디를 시작점으로 삼고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지 숙고를 거듭하기에 그러리라. 궁리 끝에 쏟아져 나오는 음악에 대한 단상들을 자연과학도의 신분에서 함께 엮어 글을 쓴다.

<Norwegian Wood>

음악은 예리한 바늘. 단숨에 나의 가장 깊고 심원한 곳까지 파고들어 서사를 새긴다. 이렇게 새겨진 자국은 레코드판의 미세한 골이 되어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이 짙게 새겨진 순간을 그대로 재생한다. 순간의 정경, 풍취, 반지하 단칸방의 꿈꿨던 곰팡내와 늦여름 제주도, 해질녘 보랏빛 하늘과 맞닿은 바다의 습한 짙내까지 모든 감각적 기억이 되살아난다. 가루가 되어 사라진 줄 알았던 다면의 증거들을 기억 어딘가, 가라앉은 곳에서 부터 층층이 조립하여 디오라마로 재현한다. 음악이 나오면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간다. 다시 보며, 다시 듣고, 다시 느낀다. 음악이 나를 기억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음악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열어젖혀 시계태엽 오렌지 속 세뇌 장치와 같이 날 묶어 놓고 기억을 시청시킨다. 음악은 가히 폭력적이다. 불시에 습격하여 완전하게 무력화시킨다. 시간과 공간을 교란하여 자아를 해체한 후 조립시킨다.

위 단락은 단지 은유가 아니다. 뇌는 음악을 통해 기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체험한다고 느끼게 작동한다. 음악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 회로를 재점화하는 점화 장치이며 자기 서사의 무대 조명이다. 낮익은 멜로디, 반복되는 리듬, 오래전 감정을 품은 가사의 한 줄은 해마(hippocampus)를 흔들고, 그와 연결된 기본 모드 네트워크(DMN, 후대상피질, 내측전전두피질, 측좌핵)를 자극한다. 이 회로는 단순히 “기억을 불러오는 장치”가 아니라, 과거의 단편들을 다시 지금-여기의 감각으로 조립하여 살아

있는 서사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음악은 과거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한다. 과거의 “정황”이 냄새, 빛, 목소리, 공기의 밀도와 함께 부활하고, 우리는 진짜로 그 순간에 다시 있는 듯한 착각, 신경망이 만들어낸 현실을 추체험한다. 원치 않아도, 막을 수 없어도, 음악은 열린 문을 지나 그 기억을 데려온다. 그 순간 뇌는 방어를 내려놓아 경계를 해제한다. 음악은 폭력적이다.

그러나 그 ‘폭력성’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시간을 되짚는다. 기억은 자아의 핵심이며, 음악은 그 자아의 문장을 다시 읽게 만드는 음파의 강독이다. 음악을 들을 때, 뇌는 나를 다시 그때의 ‘나’로 변환시키며, 그 변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현이다. 음악으로 인해 기억의 서랍이 다시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음악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나의 일부, 나를 현재로 호출하는 시간의 손잡이가 된다. 나는 그 기억과 함께 다시 존재하고, 다시 느끼며, 다시 살아낸다. 음악은 시간여행. 나는 순간이동자이고 시간여행자이다.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함께한 누구와도 다시 존재할 수 있다.

소설 『상실의 시대』 속, 착륙을 마친 함부르크 공항의 비행기 기내 안에서 서른일곱의 와타나베는 비틀즈의 'Norwegian Wood'가 흘러나오자, 그는 19살의 도쿄로 돌아가 나오코와 함께 걸었다. 그 순간, 더 이상 상실이 아니었다.

<Lala Land>

어릴 적, 뮤지컬 영화를 보면 특유의 생경한 장면이 괴이함을 느끼곤 했다. 장발장과 자베르가 마주하자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장면은 내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고증과 현실감을 중시하는 나에게 흐름을 깨는 뮤지컬 영화는 집중에 한계가 있었다. 뮤지컬 특유의 전개와 톤을 비롯한 장르 특성을 이해할 만큼 포용력이 부족한 시기였다.

내가 뮤지컬을 이해하게 된 것은 『라라랜드』라는 영화 덕분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꿈과 사랑, 이별과 만남, 이상과 현실 사이를 진자 운동하는 청춘들의 노래. 한창 음악에 열중하며,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공감해서였을까. 그들은 단지 노래한 것이 아니었다. 음악으로 대화한 것이다. 음악은 대사의 압축이자 감정의 증폭이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기교가 아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음악은 감정 유발과 조절에 관여하는 대뇌변연계(limbic system)에서 처리된다. 음악은 청자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감정에 명확한 영향을 끼친다. 모험을 나서는 장면에서의 경쾌한 메이저 키 음악은 희망을 자극하고, 서정적인 마이너 키 음악은 복합적인 감정을 공명시킨다. 이렇게 나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라라랜드의 선율은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정서적 리듬을 조율했다. 사회는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고, 각자 다른 리듬으로 연주되는 불협화음은 때로는 텐션음을 이루어 긴장을 만들어내고, 이내 해소되어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낸다. 음악은 감정의 구조를 형성하는 언어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 준다. 그렇게

음악은 삶의 감각을 깊고 선명하게 한다.

5월의 학교 주변에는 새들의 합주가 흘러나온다. 음악은 공기처럼 주변에 흐르기에, 내 삶은 라라랜드이다.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So, life goes on>

20살, 살면서 처음으로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 나도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해 왔던 아티스트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고 그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고 싶었다. 어렸던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 어찌나 되기 싫던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음악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 돈과 명예를 얻고 싶었는지, 동경하던 아티스트처럼 되고 싶던 건지 확실하지 않다. 뭐가 됐건 나는 평생 굶어도 음악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다. 음악에 영혼을 바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음악을 시작했다.

장비를 마련하고, 작업실을 꾸미고, 매일 밤을 지새웠다.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손가락이 절로 움직여 악상이 머릿속에 휘몰아치고 히트곡이 뽑아져 나오는 줄만 알았다. C코드는 고사하고, 도 건반이 어딘지도 모르던 나였다. 악기, 화성학, 프로듀싱 등 배울 건 산더미였고 음악은 독학이 가능할 거란 헛된 자신감을 가졌다. 평생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탓에 뭔가를 배우는 요령도 없었다.

“여기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달려야만 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하루를 쪼개고 쪼개서 잠을 줄여서까지 음악에 몰두했다. 시간은 가고 나이는 먹어갔다. 해가 지날수록 나보다 어리고 음악 경험이 적은 아티스트들이 데뷔하고, 주변 친구들의 입사 소식이 들려왔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음악의 결과물은 언제나 창피한 아마추어의 수준에 머물렀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현재 내 위치와의 괴리감. 결코 닿지 못할 듯한 저 멀리를 동경하였기에 나는 조금이라도 간극을 좁히고자 어제보다 오래 작업했고, 더 짧게 잠들었다. 고립무원의 작업실에서 악전고투가 이어졌지만 점점 속어서부터 자기혐오로 자신을 갉아먹으며 썩어갔다. 몇 년간의 음악으로 돈과 명예는커녕 허리디스크라는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오랜 기간을 옆에서 응원하며 지켜주었던 애인의 기대를 저버림에 볼 면목이 없어 이별을 고했다. 음악은 더 이상 꿈이 아닌 고통의 상징이었다. 음악은 나를 살게도 했지만, 결국 나를 무너뜨렸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잃은 나는 살아갈 이유 또한 잃었다. 사는 이유를 잃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내장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

“삶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란 걸 말예요. 근데 가난한

나의 마음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 -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 너드커넥션

그렇게 내 인생의 음악이라는 막이 내리고, 음악으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나는 동네 커피숍에 입사했다.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았다. 규칙이 필요했다. 그렇게 매일의 음악 작업은 카페에서의 커피 추출로 바뀌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커피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음악이 아닌 다른 삶의 의미들을 찾아 나갔다. 같은 시간 마주하는 단골 손님과의 안부 인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 퇴근 후 매일같이 들렸던 도서관. 책을 읽을 시간에 작업에 몰두했던 나이기에 처음에는 글읽기에 꽤나 애를 먹었다. 책과 공성전을 하듯이 한 권 한 권 정복해 나갔다. 그러던 와중, 책을 읽으며 듣던 음악이 방해가 되는 순간을 마주했다. 그때의 전율은 잊을 수 없다. 내 인생의 '전부'가 나를 방해하는 '일부'로 전환되었던 그 순간. 음악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고, 음악이 빠진 공간에 다른 값진 가치들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충만감을 나날이 채워 나가며 다시 인생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음악을 듣기만 해도 과거의 실패가 상기되어 구역질이 났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다시 음악과 화해했다. 음악이 차지했던 내 마음의 방을 빼고 여러 가지 방을 구축했다. 여행, 독서, 언어 공부. 더 이상 음악은 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었고 그 빈 공간을 다른 가치들로 채웠다. 음악이 아니면 죽어도 좋았던 나는 책을 읽고, 독립서점에 다니고, 낯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글을 쓴다. 지금도 음악은 내 일부다. 바늘처럼 깊이 찔러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상처가 아닌 결을 남긴다. 음악이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음악이 나의 전부였기에 나는 무너졌고, 이제 음악이 일부가 되었기에 나는 다시 서 있다. 그 역설이 지금의 나를 구성한다. 그렇게 음악은, 다시 나를 꿰맨다. 인생은 계속되고, 음악은 흐른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